

■'주 52시간 근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인력 수급난·인건비 상승에 중기·건설 한숨

입시철 맞은 대학가 행정 '비상'
유연근로제 정착 유통·금융 방긋

내년 1월1일 50~299인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 확대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가 비상이다. 노동집약적 산업인 제조업체와 건설업체는 당장 인력 수급, 인건비 걱정에 밤잠 설치고 있고, 입시철을 맞은 대학가도 주 52시간에 발목이 잡혀 입시행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반면 유통가와 금융가는 유연근로제 등이 정착되면서 주 52시간보다 적은 주 40시간 근무로 일·여가를 동시에 즐기고 있다.

◇노동집약 중기·건설업계 한숨= 노동집약적 산업인 중소 제조업체와 건설업체는 '주 52시간 근무'가 생존과 직결된다며 시행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에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말고 근로자를 더 고용하라는 의미인데 대다수 업체들은 추가 고용보다는 조업 단축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는 임금 축소에 따른 숙련근로자 이탈, 외국인력 의존도 심화, 생산성 저하, 불량률 증가 등 연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설업체도 걱정이 많다. 광주·전남지역

건설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체 수를 대략 150여곳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반 건설업체가 80여곳, 전문건설업체가 70여곳 정도다.

건설업체는 대규모 공사 수요의 대부분을 관공공사에 의존하다보니 공사기간 내 준공하기 위해선 오전 9시~오후 6시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준수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공사기간을 넘기면 자체 보상을 물게 돼서 주말이나 야간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해 다른 업종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불안감을 내비쳤다.

건설업체는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가 우선 공종별 적정 공사기간과 적정 인력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간 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여러 공정의 협업과 연속 작업, 적정공기 확보 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자칫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시철인데...' 대학가 비상= 입시철

을 맞은 대학가는 유예됐던 주 52시간 근무가 이달 말로 종료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란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업종이다.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로 줄면서 교육, 노선버스, 연구개발업 등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대학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당장 10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1년 중 가장 바쁜 입시철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수시에 이어 정시 모집, 합격자 발표 등 내년 초까지 초과근로가 불가피한데 주 52시간 근무제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법을 지키다간 입시행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대학의 입시업무는 수시 접수가 시작되는 9월부터 정시모집을 거쳐 합격자를 발표하는 이듬해 2월까지 약 6개월간 집중된다. 국회에서 탄력근로 단위가간(현행 3개월)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초과근로가 불가피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게 입시 업무 관계자들의 호소다.

◇유통·금융가는 방긋= 175명이 일하는 ㈜광주신세계는 지난해부터 주 35시간 근무(5일 기준)를 도입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했던 종전 근무시간을

오후 6시 30분까지로 앞당겼지만 임금은 그대로 유지했다. 근무시간 외 업무를 방지하기 위해 사내 컴퓨터 이용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로 제한했다.

광주·전남 9곳을 포함한 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이곳 직원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정도로 나타났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기존에 운영해온 유연근로제 권고를 확대하고 퇴근시간 10분 전에는 PC알람을 활용해 직원들의 정시 퇴근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내 시스템을 활용한 정시 퇴근 독려하는 수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직원이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퇴근시간 30분 전부터 정시 퇴근 메시지가 사내 시스템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신협 광주전남본부 소속 지역조합은 총 89개(광주 44개·전남 45개)로 이들 조합 가운데 직원이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없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강제성은 없지만 이들 조합은 사내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를 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해양에너지 '지역산업진흥 유공 단체' 대통령 표창

㈜해양에너지(대표 김형순·맨 오른쪽)는 최근 순천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막식에서 지역산업진흥과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2019년 지역산업진흥 유공 단체부문'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역산업진흥포상은 지역산업진흥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해 정부에서 포상하는 제도이다. (주)해양에너지는 지속적인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통한 매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채용 및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돼 수상하게 됐다. (주)해양에너지 김형순 대표는 "해양에너지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경쟁력 있는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지역민들에게 사랑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전남 소비심리 2개월만에 반등

이번 달 광주·전남 소비심리가 기준선을 밑돈 지 2개월 만에 반등했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 하락 우려가 겹치며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줄어들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2019년 9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2.1로 한 달 전보다 6포인트 올랐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지수가 100보다 작으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장기평균(2003~2018년)보다 비관적임을 뜻한다. 이 지수는 지난 6월 102.5까지 오른 뒤 2개월 연속 하락했다가 이번 달 상승

했다. 지난해 같은 달 지수 보다는 105.7보다는 3.6포인트 낮았다. 전국 평균 소비자심리지수는 96.9로, 4개월 연속 하락했다가 이번 달 상승했다. 다만 지수가 기준치인 100보다 작은 만큼 경기와 가계의 지급 사정을 부정적으로 본 응답자들이 여전히 더 많았다. 광주·전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지수들을 항목별로 보면 가계·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소비자동향지수와 취업기회와 금리수준을 전망하는 지수는 전달보다 각각 상승했지만 물가상승에 대한 인식은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했다. /*백희준 기자 bhj@

LH, 영암·무안 비축토지 20필지 10만여㎡ 매각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 본부는 영암·무안지역 비축토지 20필지 10만2000㎡를 매각한다고 26일 밝혔다. LH가 개인·기업 등으로부터 매입한 토지로 영암군 내 자연녹지지역과 무안군 내 일반주거지역에 있다. 영암군 자연녹지지역 내 토지들은 대불산단 인근 삼호읍 난전리 561일대로 염전, 잡종지, 임야 등 12필지다. 인근구 조성이 추진 중이며, 현재는 골프장이 조성 중이다. 매각 예정 가격은 1억300만~7억5300

만원이다. 3.3㎡당 15만원가량이다. 무안군 소재 토지들은 일로읍 월암리 일반주거지역 내 잡종지, 전 7필지, 자연녹지지역 1필지 등 서로 연결하고 있어 일괄 매각한다. 매각 예정 가격은 20억원이다. 3.3㎡당 41만원가량이다. 입찰 방식은 최고가격 입찰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한다. 입찰 신청 접수는 10월 21일, 계약 체결은 10월 28~29일이다. 문의, 보물관리부 062-360-3304.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지역제품 써주기' 첫 결실

중흥건설, 지역 AI기업 제품 81억 어치 구매 계약

광주지역 제조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광주시가 추진하는 '지역제품 써주기 운동'이 첫 결실을 맺었다. 광주 대표 주택 건설업체인 중흥건설이 지역 청년 창업기업의 IT 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29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중흥건설이 경기도 고양 지축지구 등 전국 67곳의 건설현장에 지역 청년 창업기업인 ㈜넛은의 AI안면인식솔루션을 적용하기로 했다. 광주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인 넛은은 지

중흥건설은 넛은 제품을 2022년 9월 까지 앞으로 3년간 납품 받아 전국 건설 현장에 CCTV 및 출입통제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구매 계약 규모는 81억 5000만원이다.

난해 10월 창업한 스타트업기업으로, 사람의 관찰 없이도 얼굴 이미지를 입력하면 CCTV 등 영상에서 실시간 얼굴을 탐색할 수 있는 안면인식 솔루션 기술을 개발했다. 특히, 얼굴을 인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0.03초에 불과해 하나의 카메라로

100명의 얼굴을 98% 정확도로 식별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앞으로 범죄자·실종자 검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지역 제조기업과 건설사 만남의 날 행사도 지역기업들의 제품 구매 계약으로 이어졌다"며 "넛은과 같은 광주 4차산업혁명 선도기업이 세계적 AI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비리 많은 지역주택조합 한달내 탈퇴 허용

가입비 등 반환 등 투명성 개선
주택법 일부개정안 국토위 통과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한 달 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조합은 가입비 등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또 조합은 매년 자금운용 계획, 자금 집행 실적 등을 사·관·구에 제출해야 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항목별 시행시기는 공포후 6개월~1년 뒤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 용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짓는 것이다. 주택공급이 부족하던 1980년대 도입된 한때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통장이 없어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각종 조합의 비리와 사업 기회 등 사회적 문제를 낳기도 했다. 최근에는 주택조합 가입자가 조합설립인가 전 탈퇴를 요구할 경우 명확한 환급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해 조합이 조합원의 납입 대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관련 자료 공개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정욱 기자 jwpark@

로또복권 (제878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2	6	11	16	25	31	3
등위		당첨금액(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3,207,993,500	6			
2	5개숫자+ 보너스숫자일치	46,492,660	69			
3	5개 숫자일치	1,079,769	2,971			
4	4개 숫자일치	50,000	129,139			
5	3개 숫자일치	5,000	1,994,188			

한전KPS

2019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글로벌 발전플랜트 Solution Provider,
한전KPS에서는 꿈과 열정으로 가득한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한전KPS에서 원대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꼭 도전하십시오.
한전KPS가 여러분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Perfect & Pride, 한전KPS

한전KPS의 역무 한전KPS는 국가경제의 핵심 기반산업인 전력산업 최일선 현장에서 발전 및 송변전 설비에 대한 무결점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전KPS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고객사 전력설비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홈페이지(www.kps.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